

#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 무주군, 주 2회 이상 10만 원... 장기입원환자, 시설입소자 지원대상서 제외

무주군은 관내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통비 지원은 관내에 인공신장실이 없어 부득이 타 지역 소재 병원으로 가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지원신청서 등을 갖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2)으로 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

중인 환자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집계 현황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2018년 현재 50여 명 정도"라며 "치료비와 교통부까지 부담이 큰 환자와 가족들에게 교통비 지원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 박차

### 한우 50두 이하 사육 농가 6~8개월 령 암송아지 5마리 지원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이 2019년 배넛소 지원 사업(총 7회 진행, 22농가에 110두 지원)을 지난 10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배넛소 지원 사업은 한우사육기반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한우 50두 이하 사육 농가 중 배넛소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6~8개월 령의 암송아지)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2008년부터 319농가에 총 1,104두를 지원했다.

올해 배넛소를 공급받은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돼서 개인적으로 사육 규모를 확대하는 건 사실 엄두가 나질 않는다"라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배넛소를 지원받은 만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소득증대의 꿈도 이루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농축산유통과 김영종 과장은 "축산농가의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 당초에는 배넛소 지원두수를 농가당 최대 10마리까지 공급할 계획이었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이 2019년 배넛소 지원 사업을 지난 10일 모두 마무리했다.

으나, 보다 많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농가 당 5마리씩 지원했다"라며 "농가에서는 배넛소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인근 가축시장

평균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규모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장수군보건의료원은 15일부터 2019년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무료접종 대상은 만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12세, 영·유아, 어린이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관내 9곳 병원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또 의료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결혼이민자본

인, 만 60세 이상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만13세부터 59세 이하는 접종비 7600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노인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은 ▲동아정형외과의원, ▲박승민내과의원, ▲수가정의학과의원, ▲한사랑의원, ▲김문철내과의원, ▲연세의원, ▲참가정의학과의원, ▲한독의원, ▲

중앙의원이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박승민내과의원, ▲김문철내과의원, ▲연세의원 등에서 할 수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통상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된다"며 "본격적인 유행 시기 이전인 10~12월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장수군보건의료원(350-2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마지막날인 최근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가 전국 각지 향우 2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이산 북부 축제장에서 열렸다.

# 전국 각지 진안 향우회 한자리 모여

### 홍삼축제 마지막날 연탄 2000장 기탁·사과 공동구매 등

진안홍삼축제 마지막날인 13일 전국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가 전국 각지 향우 2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이산 북부 축제장에서 열렸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과 안호영·정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재경, 재부산, 재대전, 재안산시흥, 재인천, 재이천, 재익산, 재군산, 재오산, 재군포, 재전주 등 전국 각지의 출향 군민들이 참석해 축제 마지막날을 더욱 의미있고 풍성하게 꾸며졌다.

진안군이 후원하고 진안군 재전진안군향우회(회장 윤석정)에서 기획·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전국 진안군 향우 만남의 날 기념식과 3시 미스트롯(정다경, 김소유, 정미애, 홍자)과 영트로트 가수 10인이 출연하는 전국 토티 가요무대로 이어져 전국 향우는 물론 진안군민과 관광객들이 하나되는 자리가 되었다.

기념식에서는 김영조, 진병철, 이

상욱, 노금숙, 최춘상, 홍순화, 최병래, 고영철, 윤영목, 장수일, 김옥임, 양현경, 윤선기, 정용주, 전병권씨 등 15명에게 '자랑스런 향우 상'을, 송상모, 최미자 씨에게 '고향의 인물상'을 수여했다.

또한 재부산진안군향우회(회장 김중현)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전주제인택시진안군향우회(회장 정민열)에서 연탄 2000장을 기탁했다. 전국 향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고향 농특산물 애용하기'를 진행해 사과 300박스를 공동구매 하여 훈훈한 정이 오가는 자리가 되었다.

재전진안군향우회 윤석정 회장은 "오늘 행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향사랑 가득한 향우들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만남의 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며 "앞으로 내 고향 진안 발전에 전국 향우들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장수군은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대책본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과 산불인화물질제거요원 16명 등 총 54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구성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등을 위해 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과 각종 시기·월인에 따른 지역 산불 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부산물 등 소각 행위는 읍·면 사무소나 산림과에 신청해 소각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예방에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제57회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

진안군은 지난 12일 오후 57주년을 맞는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을 진안 공설운동장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이한기 전북도의원,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역대군수 등 내외빈과 향우, 군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최근 3년간 군민의 날 기념식이 홍삼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민의 날 위상이 저하되었다는 지역 인식이 많았다. 이에 군민의 날 상징성을 부여하고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행사로 기념식을 마련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국악협회진안군지부의 신명나는 터울립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문화장 김상영 △공익장 김중기 △산업근로장 김정화 △애향장 이웅진 △효행장 김미선 △체육장 김지수씨 등 6명에게 진안군민의 이름으로 군민의 장을 수여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4개부 1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군민화합 체육대회가 열려 전군민이 참여하는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고향, 희망이 넘치는 진안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민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마이산북부 주요명소 5곳 방문 인증 시 선물 증정

진안군은 14일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주요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15일부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이산 북부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탬프투어는 마이산북부 주요 명소 5곳을 방문 후 리플릿에 인증 도장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획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스탬프투어 코스는 △산약초타운 △홍삼산과 △쇄지문화체험관 △가위

박물관 △명인명품관이다. 기념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방법은 마이산북부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스탬프투어 활동지를 가지고 5곳의 관광지를 방문 후 관광지 앞에 있는 스탬프함에 있는 도장을 찍어 다시 관광안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선물이 전복투어패스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